2005년 학술발표회 결과보고

학술간사 김영오 |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yokim05@snu.ac.kr

금년 우리 학회 학술발표회가 5월 20일과 21일 양일간 원광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우리 학회는 작년부터 이틀간 학술발표회를 거행하게 되어 논문발표는 물론 특별세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가 마련될 수 있었다. 원광대학교는 전국에서 캠퍼스가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준공된 새천년관의 새로운 시설을 제공하고 있어 학술발표회 장소로 적절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1. 준비 과정

학술발표회 준비는 학회 학술담당 임원진(우효섭 학술부회장, 허준행 학술이사, 김영오 학술간사), 주최교(원광대학교 토목환경도시공학부 전시영 교수), 그리고 사무국 이렇게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학술담당 임원진은 전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논문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준비하였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술발표회 전체 주제를 달기로 정하여 '생명의 물(Water for Life)' 을 주제어로 공표하였다. 논문초록 접수는 1월 15일에 공고를 시작하여 2월 28일에 마감하였고, 논문초록 심사와 분류를 3월 20일에 완료하여 저자에게 통보하였으며, 4월 22일까지 최종본을 접수하였다. 매년 있는 일이지만 올해도 마감기한이 지나 접수를 요청하는 사례가 10건 이상 발생하였으나 모두 받기로 결정하였다. 금년부터는 논문 심사와 분류는 물론 발표회 후 우수 포스터 선정도 각 학술분과위원장에게 일임하여 분과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한 가지 개선해야 할 점은 논문초록 접수 시 함께 제출하는 양식으로 예년부터 계속 사용해 왔던 것인데, 저자가 표시하는 논문 분류항목이 적절하지 못하여 추후 논문을 분류할 때 애로가 많았다.

준비부터 행사 당일까지 가장 노고가 많았던 기관은 주최교인 원광대학교 전시영 교수 이하 학생들이었으며, 행사 하나하나에 필요한 준비사항을 챙겨야 함은 물론 후원업체를 구하여 행사 살림을 알뜰하게 꾸려야 하는 일까지 도맡아 하셨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주최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사무국에서는 이미 여러 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가 필요한 시기와 업무분장을 적절히 알려주어 원만한 준비가 가능하도록 기반이 되었다. 앞으로는 준비 시작에서부터 행사가 끝날 때까지 문서로 된 매뉴얼을 작성하여 준비위원이나 직원이 바뀌더라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을 기획위원회에 건의한다.

2. 등록

집계결과 올해 학술발표회 등록인원은 총 600명으로 매우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평일인 첫날 등록인원도 300명이나 되었다. 특히 익산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등록비를 50% 감면하

여 많은 참여가 있었으며 첫날 초청강연과 기획세션의 성황에 일조하였다.

등록한 회원에게는 초록집과 전체 논문을 실은 CD, 그리고 10,000원 이상의 고가의 기념품이 주어졌다. 초록집에는 현재 한 페이지에 한 편의 초록이 실려 있으나 초록의 길이를 반 페이지로 철저히 제한하고 한 페이지에 두 편씩 실을 수 있다면 현재의 분량을 반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CD도 앞으로 학회 웹하드에서 다운로드 받는 방안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개진되기도 하였다.

3. 리셉션과 개회식

리셉션은 첫날 저녁에 있었으며 대학내 호수 옆 야외 잔디밭에서 거행되어 100여명의 회원과 회원가족이 계절의 여왕 5월을 만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리셉션 중간에는 원광대학교 국악전공 학생들이 공연을 곁들여 행사가 더욱 빛날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개회식은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100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본격적인 학술발표회의 출발을 축하했다. 개회식은 김영오 학술간사의 사회로 지홍기 기획부회장의 경과보고, 송재우 학회장의 개회사, 정갑원 원광대 총장의 환영사, 그리고 권도엽 건설교통부 차관보의 축사로 이어졌다. 특히 정갑원 원광대 총장님은 전날 서울에서의 회의로 참석이 불투명하였으나 당일 새벽 열차로 도착하는 열의를 보이셨고 학회에서는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한 전병호 직전 학회장에 대한 특별공로패 전달에 이어 원광대학교 소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리는 IAHR 학술대회 경과보고로 개회식을 마쳤다.

4. 구두 및 포스터 논문발표

올해 발표된 구두 및 포스터 논문 수는 역대 최다로 각각 97편과 195편에 이르렀다. 한 세션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140분으로 구성되었으며 8~9편의 논문이 휴식 없이 발표되어 다소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내년부터는 논문발표를 한편 줄이고 중간에 5분 정도의 휴식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논문발표는 4개의 방에서 진행되었으며 오전에 하나 오후에 둘 이렇게 총 12개의 세션이 진행되었으며, 세션마다 소주제를 두어 청중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구두논문을 선정을 당시 박사과정 학생 이상의 자격을 가진 회원이 발표를 하도록 원칙을 정하였으나 당일에는 예정된 발표자 대신 석사과정 학생이 발표하는 사

표 1. 우수논문 수상자 명단

구 분	발표자	논 문 제 목
구두발표 (6편)	이창해(대진대)	• 상호변수 최소자승 회귀분석 방법의 제안
	김지성(경북대)	• 도시배수체계와 연계한 침수모형의 개발 및 검증
	이신재(서남대)	• 하천 조도계수 산정의 불확실성에 관한 연구
	류권규(명지대)	• 부유사 입자에 의한 개수로 난류 유속분포의 변화
	고진석(영남대)	• 정체수역에서의 Mattress/Filter의 채움재에 따른 수질개선효과
	이충성(인하대)	• 유역단위 치수사업을 위한 의사결정모형의 개발
포스터발표 (6편)	서일원(서울대)	• 순차혼합모형에 의한 전단류 분산해석
	한명선(건기연)	• 2004년도 섬진강 유량자료 검증
	신사철(안동대)	• NDVI를 이용한 유역규모의 증발산량 분포 추정
	박민지(건국대)	• ArcHydro GIS를 이용한 관개 시스템 네트워크 모델링
	노재경(충남대)	• 용담댐 운영시나리오에 따른 대청댐 저수량변화에 관한 연구
	우종협(한양대)	• 방파제 전면부에서의 불규칙파의 파압해석

례가 드물게 있었다. 이런 경우 앞으로는 적절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하며 내년부터는 회원들에게도 원칙과 위반시 제재조치에 대하여 사전에 여러 번의 홍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우리 학회 학술발표를 질적으로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구두발표는 해당 좌장이, 그리고 포스터 발표는 해당 학술분과위원에서 평가한 결과 구두와 포스터 각각 6명씩 총 12명이 우수논문(표 1)으로 선정되어 제1저자에게 상장과 7만원 상당의 부상이 주어졌다.

5. 초청강연과 특별세션

초청강연은 이번 발표회의 첫 행사로 금요일 오후 2시에 시작되었으며 군산대학교 이점숙 교수의 '습지보전을 위한 생태학적 접근'과 고려대학교 최승일 교수의 '수돗물 수질기준의 설정 및 소비자의 기호'라는 두 개의 강의가 이어졌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150여명의 청중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으며 이는 생태와 수질이라는 인접분야에 대한 우리 학회회원의 높은 관심도를 말해준다.

올해는 두 가지의 기획세션이 처음으로 시도되었으며, 두 세션 모두 자리가 없어 서서 발표를 들을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 하나는 2005년도 수자원정책을 입안자인 공무원들에게 직접 들어보는 자리였으며 수자원정책분과위원회(위원장 윤석영)에서 주관하였다. 또 하나는 산업체에서 실제로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에게 애로사항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마련되었으며 올해는 유역종합치수계획을 그 주제로 선정하여 수공기술분과위원회(위원장 오규창)의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자칫 이론적으로 흐르기 쉬운 학술발표회의 논문발표를 보완하여 현실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또 하나의 특별세션은 일본 및 중국에서 초청된 학자들과 함께 마련된 국제세션으로 일본에서 3편, 중국에서 2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2편 총 7편이 영어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발표주제가 너무 상이하여 집중도가 떨어졌으며, 또한 다른 방에서 한국어로 기획세션이 진행되고 있어 청중이 너무 적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내년도에는 주제를 좁히고 이를 일본과 중국에 일찍이 알려 발표자 선정에 여유를 갖도록 하고 청중이 분산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야겠다.

시니어세션도 올해부터는 참여회원에게까지 초청의 범위를 넓혀 30여명의 시니어 회원이 참석하였고 이어도 해양관측시설에 대한 강연을 들은 후 새만금 간척사업장으로 현장견학이 이어졌다. 오는 9월에 열리는 IAHR 학술대회를 기념하기 위해 IAHR 한국지회 회원을 위한 세션도 마련되었으나 호응이 많이 떨어져 효과가 크지는 못했다.

6. 기타 행사 및 프로그램

전시회에는 12개의 업체가 신청하여 1층에 마련되었으나 대부분이 자연형 하천과 관련된 회사로 다양성이 부족하였다. 미리 신청을 하지 못한 회사 하나는 당일 새천년관 현관에 무작정 전시물을 펼쳐놓는 해프닝을 벌였으며, 실내에 있는 공식업체보다 오히려 회원들의 관심을 끌게 되어 공식업체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하였다.

부인회에는 30여명의 회원가족이 참여하여 익산과 변산반도의 특산물과 수려한 경관을 만끽하였으나 연령층이 더욱 다양해졌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행사 마지막에 있은 종합토론에는 각 세션 평가와 내년도 개최지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나 참석자가 많지 않아 내년부터는 생략해도 좋을 듯 싶었다. 내년도 학술발표회 개최지는 두 지역으로 압축되었으나 결정은 회장단에게 위임되었다. 1안은 충남대학교와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연구원의 공동 주최로 대전지역이며, 2안은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방안으로 이 경우는 개최교가 따로 없으므로 학회에서 개최준비위원회를 조직하여야 할 것이다.

7. 맺음말

우리 학술발표회는 이제 양일간 거행되어 논문발표 그 이상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매년 기획되고 있으며 회원들 간의 축제의 장이 되고 있다. 이번 학술발표회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전체 주제어 선정: '생명을 위한 물'
- 논문발표 역대 최다: 구두발표 97편, 포스터 발표 195편
- 논문 심사와 분류, 그리고 우수논문상의 선정을 각 학술분과위원회에 일임
- 공무원 등록비 50% 감면
- 구두발표 세션마다 소주제 부여
- 수자원정책과 유역종합치수계획에 대한 기획세션 마련
- 시니어 회원을 참여회원으로 확대
- 야외 잔디밭 리셉션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학술발표회의 내실을 다지고 양질의 학문정보를 회원 간에 교환하기위해서 앞으로도 꾸준한 개선방안이 학회차원에서 시도되어야 한다. 올해 학술발표회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행사 날짜 선정 시 국외 타 학술대회 날짜 고려
- 논문제출시 분류항목의 개선
- 전체 준비 일정과 내용이 망라된 매뉴얼 마련
- 초록을 반 페이지로 철저히 제한하여 두 편의 초록이 초록집 한 쪽에 들어가도록 초록집을 축소
- CD 대신 전체 논문을 학회 웹하드에서 다운로드
- 구두발표 세션 140분 중간에 한번 휴식
- 구두 발표자의 경우 박사과정 학생 이상으로 제한하고 위반시 제재조치 마련 및 이를 사전에 적극 홍보
- 발표 취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재조치 마련 및 홍보
- 종합토론의 생략
- 국제세션 청중 증대 방안과 발표주제의 축소
- 학술발표회 개최준비위원회 조직

2005년 수자원학회 화보자료는 본호의 뒷부분에 수록되어 있다.

2006년도에는 더욱 진일보한 모습의 학술발표회를 기대해 보며 결과보고를 마친다.